



이제 캐치볼 시작했는데...
로저스 4월 복귀 딜레마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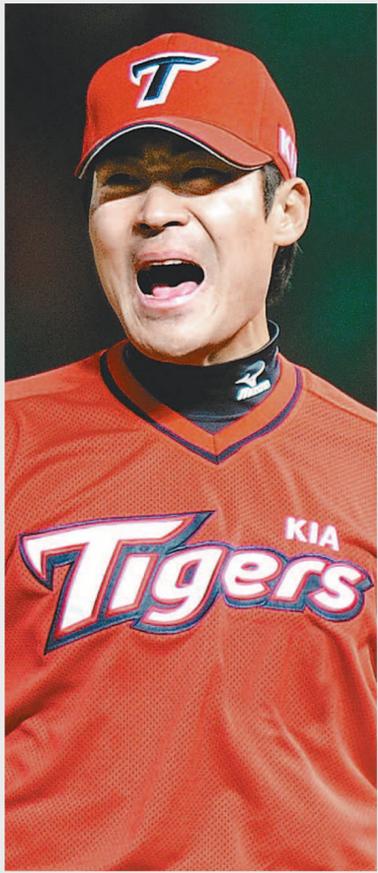
스포츠동아

2016년 4월 8-9일 주말판 sportsdonga.com 10판

동료 쫓아 두벅이 출근
박병호의 '호기심 천국'
4면



아홉번의 수술 후 KIA 마무리로 우뚝선 '곽정철의 인간승리'...세번의 팔꿈치 수술 딛고 100홀드 완성한 'LG 이동현의 투혼'



KIA 곽정철은 '기회는 계절처럼 다시 온다'는 말을 가슴 속에 새긴 채 포기하지 않고 5년간의 재활을 견뎌냈다. 그리고는 다시 마운드에 우뚝 섰다. 스포츠동아 DB

인생은, 흔들리며 피는 꽃

이재국의 야구여왕

곽정철, 5년만에 1군 무대 감동의 세이브
이동현, 혼신을 다해 쌓아온 값진 대기록
포기하지 않은 그들...화창한 봄날을 맞다

#. 까맣게 잊고 있었다. KIA 곽정철(30), 한 때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름 석 자는 우리의 기억에서 차츰 차갑게 식어갔다. 그럴 만도 했다. 2011년 시즌 중반 1군 무대에서 자취를 감춘 뒤로 5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말이다.

세상인심을 굳이 탓할 필요는 없다. 야구를 하면서 무려 9차례나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다. 지난 5년간만 따져도 팔꿈치와 무릎에 5차례나 칼을 맞았다. 1년에 한 번쯤, 2009년 'SKY(손영민~곽정철~유동훈 라인)'의 일원으로 한국시리즈 우승의 연결고리가 됐던 불행의 핵이었지만, 다시 1군 마운드에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실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의 눈이 아무리 차가워져도, 그는 내면의 뜨거움을 잃지 않았다. 두려움에 흔들릴 때마다 '기회는 계절처럼 다시 온다'는 문구를 가슴 속에 새겨 넣었다. 재활훈련이 노동처럼 느껴질 때마다 '내 위치가 여기라던 더 준비하겠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가 울었다. 겨울 같았던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냈더니, 꽃피는 봄날이 기어코 돌아

왔다. 올 3월 시범경기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5년간 박제돼 있던 '곽정철'이라는 이름 석 자를 팬들에게 다시 알렸다. 6경기에 등판해 단 1점도 내주지 않고 3세이브를 거두면서 희망의 불을 지켰고, 무려 5년 만에 1군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는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했다.

그리고는 마무리투수 자리를 꿰차고 2일 마산 NC전에서 1.1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1792일 만에 정규시즌 세이브를 거뒀다. 5일 광주 LG전에서도 1이닝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지키면서 시즌 2세이브를 수확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저에게도 기회가 계절처럼 돌아왔네요. 오랜 만이었지만 1군에 올라오는 그 길이 생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잘 한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따름이죠. 이제 비로소 멈춰던 시계를 돌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 2일 잠실구장, 한화전에서 이틀 연속 연장전 끝내기 승리를 거둔 직후 LG 이동현(34)은 공 하나를 움켜쥐고 감동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공을 내밀었다. 108개의 실밥으로 여민 똑같은 야구공.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LG 양상문 감독도 잘 알고 있었다. 굵은 매직펜으로 '의지의 LG맨! 100홀드까지 아픔을 잘 이겨냈다'는 글자를 한 뼘 한 뼘 정성스럽게 새겨 넣었다. 무언의 고집이었지만, 그것이 사나이들의 언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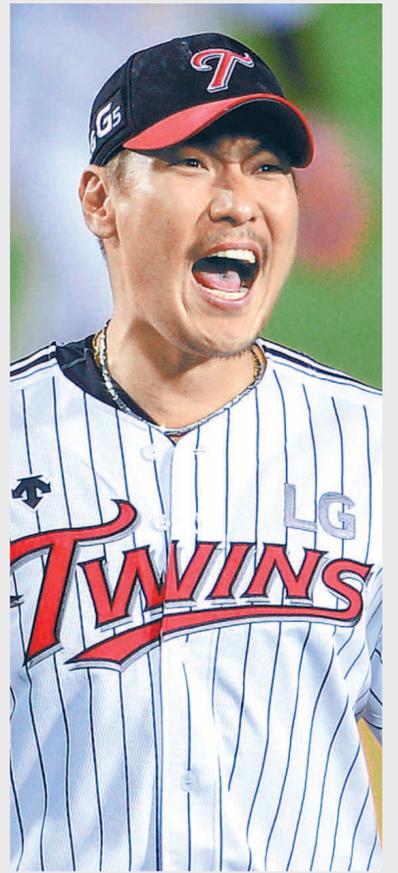
2001년 프로 데뷔 후 선수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 2004년, 2005년, 2007년 팔꿈치 인대재수술을 3차례나 받았다. 이젠 인대가 가장 나면 더 이상 수술을 못한다. 오른쪽 팔꿈치에 구멍을 뚫을 자리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100승도 아니고, 100세이브도 아닌 역대 8번째 100홀드지만, 그에겐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 공이 그에게 청춘이고, 꿈이고, 인생이었다.

남들이 걷는 지름길이 부럽지 않았을까. 홀로 걷는 둘레길이 외롭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와 여기까지 왔다는 데 대해 스스로에게 감사했다.

"견뎌준 제가 고맙습니다. 3번째 수술을 할 땐, 나이도 어렸지만, 다시는 공을 던지지 못할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당시 이상훈 선배님과 김병문 트레이닝코치가 '비록 구속이 110km, 120km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격려해줘 그 말만 믿고 수술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100홀드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 비우고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출발할 겁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자'는 제 좌우명처럼, 앞으로도 다시 한 경기, 한 경기 전력투구를 해야죠."

누구에게나 시련은 오기 마련. 세월의 풍화 작용 속에 차츰처럼 단단해진 곽정철과 이동현은 우리에게 말한다. 포기하지 말라고. 인생은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고.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LG 이동현은 무려 3차례나 팔꿈치인대재수술을 받고도 100홀드 고지를 밟았다. '하루살이처럼 살자'는 좌우명 속에 한 경기, 한 경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편집 | 정용은 기자 sadzoo@donga.com

구혜선·안재현 커플, 5월21일 결혼

1년째 열애...최근 양가 상견례



또 한 쌍의 '스타 부부'가 탄생한다. 1년째 연애 중인 연기자 구혜선(32)과 안재현(29)이 5월21일 결혼한다.

7일 한 연예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양가 상견례를 통해 결혼 승낙을 받고 일정을 확정했다. 결혼식은 호텔이나 웨딩홀에서 올리지 않고, 가족들만 참석하는 '가족예식'으로 치를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교제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결혼 일정을 잡은 데에는 양가 부모의 적극적인 지지가 컸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교제를 해왔다"며 "양가 부모들도 이들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확인하며 더 늦지 않게 결혼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린 뒤에도 안정적으로 연기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어른들의 말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종영한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 함께 출연한 인연으로 연인이 됐다. 드라마에서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조카와 천재 벤파이어 외과의사로 출연했다. 종영 직후 본격적으로 사랑을 키워오다 결혼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안재현은 케이블채널 tvN '신서유기2' 새 멤버



구혜선(오른쪽)과 안재현.

로 발탁돼 첫 방송을 기다리고 있고, 중국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현지 드라마를 촬영 중이다. 구혜선 역시 현재 차기작을 고르고 있다.

모델 출신인 안재현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의 남동생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구혜선은 MBC 시트콤 '논스톱'과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이영민 기자 annjoo@donga.com

세계 농구팬은 왜 '커리'에 열광하나

환상적인 드리블과 3점슛 기술농구
소속팀 NBA 골든스테이트 돌풍주역

요즘 세계농구계에는 '스타본 커리(28·골든스테이트·사진)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프로농구(NBA) 최고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커리는 마ایل 조던(은퇴·198cm), 코비 브라이언트(LA 레이커스·198cm),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203cm) 등 기존 스타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향의 선수다. 이들은 폭발적 탄력으로 덩크슛을 꽂고 화려한 공중동작으로 팬들을 매료시켰다. 반면 커리는 키(191cm)도 작고, 운동능력도 평범하다.

그의 경쟁 무기는 기술이다. 환상적인 드리블과 거리를 가리지 않고 터트리는 3점슛은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다.

커리의 유니폼과 농구화는 불타나게 팔리고 있으며, 그를 지원하고 있는 언더아머는 단숨에 세계농구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스포츠브랜드가 됐다. 골든스테이트 스티브 커 감독은 "커리는 3점슛을 던지는 마ایل 조던"이라고 표현했다.

커리의 영향력은 농구 인기가 하락세인 국내에까지 퍼졌다. 무작정 숏만 고집하던 국내프로농구선수들은 물론이고 중·고교 유망주들까지 기술 향상에 열중하고 있다.

커리와 함께 골든스테이트도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를



랜드를 연고로 한 골든스테이트는 2000년대 중반까지 하위팀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2009년 입단한 커리가 2010년대 들어 팀의 중심이 되면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골든스테이트의 농구는 기존 팀들과 다르다. 스피드라인으로 무장한 골든스테이트는 심 없이 뛰고, 정신 없이 3점슛을 던진다. 지난 시즌에는 '높이가 중요하다'는 속설을 깨고 NBA 챔피언에 등극했다. 골든스테이트는 7월 현재 69승9패의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1995~1996시즌 시카고가 작성한 단일시즌 최다승(72승) 기록에 도전 중이어서 더욱 관심을 사고 있다.

▶전설에 도전하는 'GSW 트리오' 2면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라이나생명
김지영이 **꼭!**
꼭! 집어 추천하는 치아보험
무엇보다 THE건강한치아보험(비갱신형)

전용 드라이버 + 칼 가위 5중세트
상담만 받아도 무료증정!

(1인 1회 증정에 한함)

오르지않는 보험료에 보철! 충전! 신경·영구치 발거치료 까지!

보장금액이 좋은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치료 보장

- 임플란트 100만원, 브릿지 50만원, 틀니 100만원(특약 가입시)
- 임플란트 50만원, 브릿지 25만원, 틀니 50만원(특약 미가입시)
- 임플란트, 브릿지는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 한도, 틀니는 보철물당 연간 1회 한도 보장
- 가입 후 90일 경과 이후 영구치 발거 후 그 자리에 치료 시 정액 보장, 2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 65세~70세 고객은 보철치료보장특약에 가입할 수 없음

금 등으로 덮어 씌우는 크라운치료 보장

- 크라운치료 20만원, 유치·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보장
- 가입 후 90일 경과 이후 정액보장,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 보장

자주하는 치수치료(신경치료), 영구치 발거치료도 보장

- 치수치료 2만원, 영구치 발거 시 2만원, 유치·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보장
- 가입 후 90일 경과 이후 충치나 잇몸질환 치료 시 정액 보장

재료 상관없이, 개수 제한 없이 때우는 충전치료 보장

- 금, 세라믹 12만원, 레진 5만원, 이말금 1만원
- 가입 후 90일 경과 이후 정액보장,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 보장

보장을 다 받아도 만기 시 만기지급금 20만원 지급!
(만기 생존 시)

0세~70세까지 온 가족 가입 가능

※ 위 보장 내용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발생한 치료에 한해 보장합니다.

080-797-7700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지급 전화하세요

[보험료 예시표]

구분	남자	여자
30세	26,200원	23,150원
40세	36,100원	29,450원
50세	53,150원	44,200원

*기준: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 / 보철치료보장특약액 5,000만원 / 보철기간: 10년만기 / 납입기간: 전가산납입 / 만기지급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기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33,200원	0원	0.0%
3년	1,299,600원	0원	0.0%
5년	2,166,000원	111,355원	5.1%
10년	4,332,000원	200,000원	4.6%

*기준: 남자 40세,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 / 보철치료보장특약액 5,000만원 / 보철기간: 10년만기 / 납입기간: 전가산납입 / 만기지급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 본 상품은 10년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전가산납입 만기지급형이며,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작거나 없을 수 있음 *보험증권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초과,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청약철회 불가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청약서에 지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